

Research Center

2017년 11월 8일

투자전략 Daily

- **시황분석**

배당주 투자와 금리

- **중화권 증시 동향**

IT 업종 강세 속 항생지수 10년래 최고치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하이비전시스템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송원산업 외 5개 종목

- **기업분석**

신세계, 원익IPS, 한국타이어, CJ헬로비전, KCC, SK텔레콤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전 략 총 괄 | 노근환
투 자 전 략 | 박소연
시 황 분 석 | 김대준
계 량 분 석 | 안 혁
스 몰 캡 전 략 | 정훈석
해 외 주 식 | 백찬규
중 국 시 장 | 최설화
신흥국/원자재 | 서태종
글 로 벌 기 업 | 정희석
자 산 배 분 전 략 | 정현종
경 제 분 석 | 박정우
채 권 분 석 | 오창섭
크 레 디트 | 김기명

true**friend** 한국투자 증권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수)	11/2(목)	11/3(금)	11/6(월)	11/7(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556.47	2,546.36	2,557.97	2,549.41	2,545.44
	등락폭		33.04	-10.11	11.61	-8.56	-3.97
	등락종목	상승(상한)	449(3)	344(2)	456(1)	341(0)	394(0)
		하락(하한)	355(0)	451(0)	331(0)	457(0)	392(0)
	ADR		117.85	114.48	113.15	105.72	106.91
	이격도	10 일	102.28	101.58	101.76	101.18	100.81
		20 일	103.45	102.68	102.77	102.11	101.72
	투자심리		80	8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62	528	293	221	229
	거래대금	(십억 원)	7,568	6,255	5,515	5,433	5,268
코스닥	코스닥지수		695.77	694.96	701.13	703.79	701.14
	등락폭		1.57	-0.81	6.17	2.66	-2.65
	등락종목	상승(상한)	642(2)	452(1)	585(2)	528(2)	576(2)
		하락(하한)	497(0)	684(0)	515(0)	599(0)	552(0)
	ADR		117.78	111.44	109.66	104.21	107.44
	이격도	10 일	101.68	101.15	101.63	101.61	101.02
		20 일	103.56	103.09	103.59	103.60	102.85
	투자심리		70	70	70	70	60
	거래량	(백만 주)	631	609	661	595	642
	거래대금	(십억 원)	3,585	4,294	4,389	4,591	5,422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414.8	1,469.5	1,318.7	290.6	73.5	211.9	189.8	15.6	537.3	74.8
	매도	2,489.0	1,338.6	1,408.1	312.6	119.4	188.8	146.2	23.5	617.5	42.2
	순매수	-74.2	131.0	-89.4	-22.1	-45.9	23.1	43.5	-7.9	-80.2	32.6
	11 월 누계	-137.4	431.0	-494.7	598.9	-175.9	-62.3	32.2	-89.0	-798.6	201.2
	17 년 누계	-5,529.4	8,476.2	-7,154.4	6,660.3	-2,003.5	-3,719.8	-92.8	-829.3	-7,169.4	4,207.7
코스닥	매수	4,806.7	338.6	277.0	144.4	11.8	33.0	28.5	4.1	55.2	24.7
	매도	4,710.2	451.9	240.2	51.3	13.1	49.0	54.3	1.9	70.6	44.7
	순매수	96.5	-113.2	36.8	93.1	-1.3	-16.0	-25.8	2.2	-15.4	-20.0
	11 월 누계	524.0	-335.3	-87.3	111.2	-12.4	-50.4	-54.1	3.9	-85.5	-101.4
	17 년 누계	3,731.6	1,880.2	-4,176.3	-729.1	-404.7	-1,040.4	-675.9	-97.7	-1,228.6	-1,435.5

배당주 투자와 금리

2017년 Target KOSPI	2,600pt
12MF PER	9.91배
12MF PBR	1.12배
Yield Gap	8.0%p

- ▶ 배당주와 금리 변화: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배당주 투자의 효율성 저하되는 경향
-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등 기업들의 배당확대는 긍정적 요인
- ▶ 배당주 접근 관점: 시중금리 상승과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 변화 혼재, 금리 변화 주시

배당주 투자 환경에 변화 발생할 전망

■ 배당주 투자에 대한 고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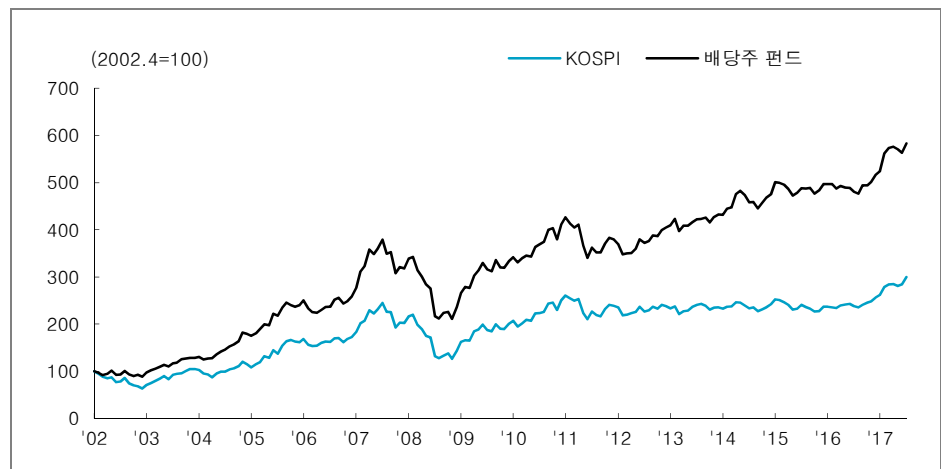
배당주의 계절이 돌아왔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다. 연말이라는 계절성은 차치하더라도 기업의 주주환원정책과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기대가 배당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배당주 투자의 성과도 나쁘지 않다. 배당주식형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은 10월까지 18%를 기록했다. 10월 누적 기준으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배당모멘텀이 극대화되는 11~12월에는 수익률이 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스러운 점이 있다. 올해의 배당주 강세가 과연 내년에도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다. 기업이 배당 확대를 약속하고 의결권을 가진 투자자들이 주주친화 정책을 요구해도 수급이 배당주를 선호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금리이다. 경기회복이 강화되면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것은 유동성이 배당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림 1] KOSPI와 배당주 펀드 주가 추이



주: 기준금리 인상 직전인 2002년 4월 기준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배당주 투자 효율성
다소 저하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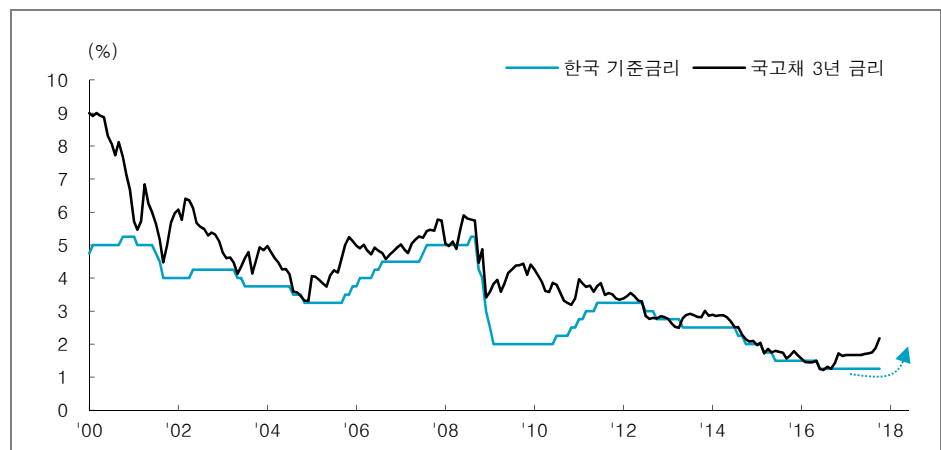
■ 금리 변화와 배당주 투자

최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 중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성장률 전망치의 상향 조정을 반영한 결과지만, 사실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은 10월 금통위의 금리인상 소수의견이었다. 금통위원이 인상의견을 피력한 이후, 2~3개월내로 금리가 올랐던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금통위의 금리인상 기조는 이제 시작이다. 당사 채권팀도 연간 2회 인상의 매파적 행보를 예상하고 있다. 결국 2012년부터 지속되던 저금리 환경은 곧 종말을 맞이할 예정인데, 이것은 배당주 투자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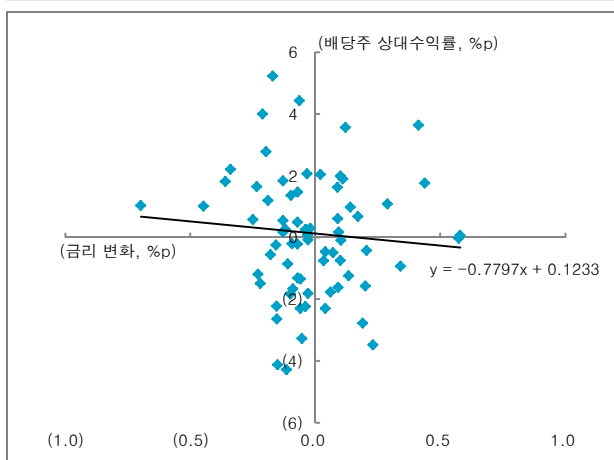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배당주 투자의 효율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시장금리와 배당주의 상관관계가 기준금리 인하기보다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추후 금리가 재차 하락하더라도 배당주의 투자수익률은 과거보다는 다소 부진할 수도 있다.

[그림 2] 한국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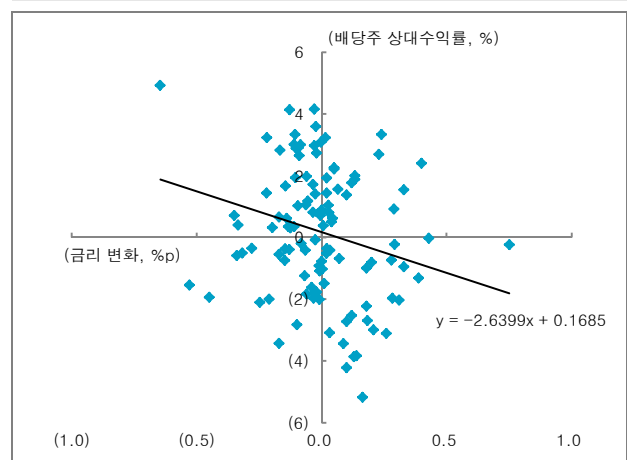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3] 기준금리 인상기: 배당주 펀드의 상대수익률



주: 월간 수익률 기준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그림 4] 기준금리 인하기: 배당주 펀드의 상대수익률



주: 월간 수익률 기준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구간별로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기 배당주 수익률 불규칙한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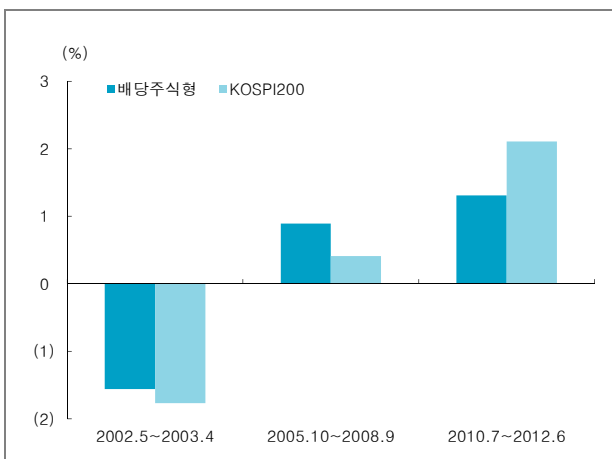
기간별로 수익률을 살펴봐도 결과는 동일하다. 통화당국이 매과 성향을 보일 때, 배당주 투자의 효율성은 비둘기 성향일 때보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이 집계된 2002년 이후로 금통위는 인상과 인하 기조를 각 3번씩 유지했다. 기준금리를 처음 올린 시점은 2002년 5월, 2005년 10월, 2010년 7월이었고, 그 반대는 2003년 5월, 2008년 10월, 2012년 7월이었다.

각 국면을 시장금리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고,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을 벤치마크(BM)와 비교해 살펴보면, 기준금리 인상기에는 시장금리 변화에 관계없이 수익률이 불규칙한 모습을 보인다. 반면 기준금리 인하기에는 시장금리 하락시 배당주 펀드의 수익률이 BM을 상회하고, 반대일 때는 수익률이 BM을 하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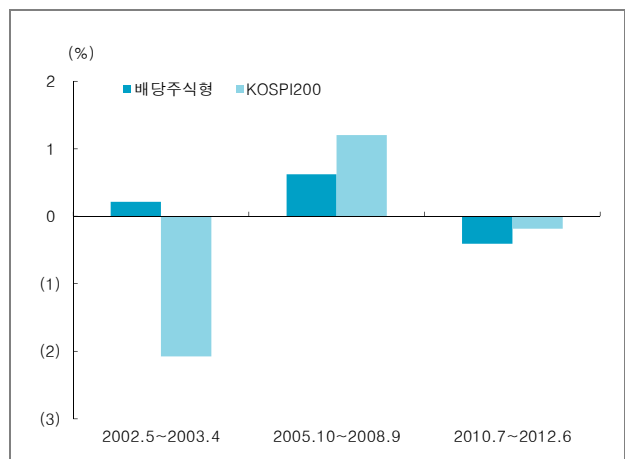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한국은 금리 인상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배당주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5] 기준금리 인상+시장금리 상승: 월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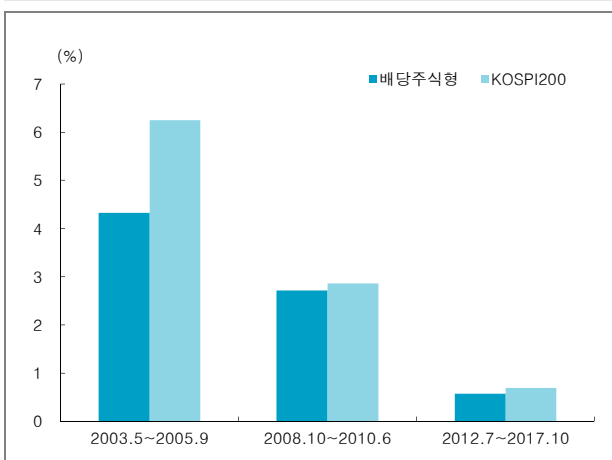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그림 6] 기준금리 인상+시장금리 하락: 월평균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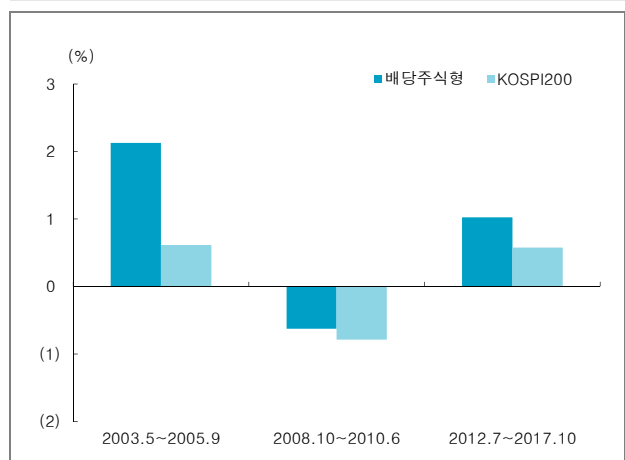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그림 7] 기준금리 인하+시장금리 상승: 월평균 수익률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그림 8] 기준금리 인하+시장금리 하락: 월평균 수익률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배당주 투자 : 금리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기업들의
배당성향 증가 여부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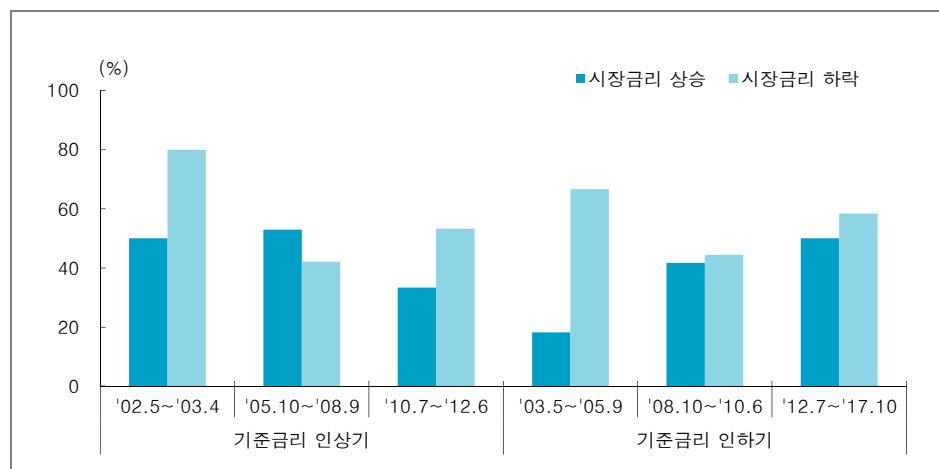
■ 배당주 투자 : 금리 상승 vs. 배당성향 증가

이상을 요약해보자. 기업의 주주환원정책과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배당주 투자매력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다만 부담 요인도 존재한다. 금통위의 매과적 기조가 대표적이다. 전술했듯이 금리가 지금보다 높아지면 그 동안의 학습효과로 인해 배당주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거 배당주 펀드의 벤치마크 대비 승률을 통해 이를 계산해 보았다. 기준금리 인하기에 시장금리도 하락한 경우는 배당주 펀드의 승률이 50%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상기에 시장금리도 상승한 경우는 배당주 펀드의 승률이 50%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내년 한국의 기준금리는 인상이 유력한 만큼 시장금리 상승 여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보다 강해질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삼성전자의 배당 확대에 의해 개별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 다만 동시에 금리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다. 특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시장금리의 예상경로가 중요하다. 2018년 배당주는 주주환원이라는 긍정적 요소, 금리 상승이라는 경계적 요소가 혼재하고 있다. 금리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기업들의 배당성향 증가 여부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림 9] 배당주 펀드의 BM대비 승률



주: 월간 수익률 기준
자료: 펀드닥터, 한국투자증권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IT 업종 강세 속 항생지수 10년래 최고치

- ▶ 상해종합지수는 0.8% 상승, 금융과 에너지 등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종들이 일제히 상승
- ▶ 홍콩H지수는 1.1% 상승,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와 국제유가 급등이 호재로 작용

상해종합지수 0.8% 상승,
정유, 철강, 보험, 은행, 증
권, 통신 등의 업종 강세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는 0.8% 상승한 3,414p로 마감하며 7거래일만에 3,400선을 회복했다. 강세로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거래대금은 2,426억위안으로 직전일 대비 18.8% 증가했다. 증감회에서 주주들의 주권이익을 위해 상장사들의 현금배당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또한 내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업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직전일 국제 유가가 사우디 숙청사태 속에 3% 이상 급등하면서 정유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또한 장기 채권 금리의 상승 속에 최근 약세를 보였던 보험, 은행 업종이 상승하며 지수 강세를 견인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테마주의 강세 속에 차스닥 지수는 0.5% 상승한 1,859p로 마감했다. 상승장 속에서 외국인들은 후구통과 선구통을 통해 15.2억위안 규모의 중국A주를 순매수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도 1.1% 상승,
에너지, 부동산, 은행, 보험
등의 업종 강세

홍콩H지수는 1.1% 상승한 11,646p로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강세 속에 상승 출발한 증시는 장중 상승폭이 확대됐다. 본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것과 직접일 국제 유가가 급등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부동산, 보험, 은행 등이 상승했다. 한편 내일 상장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출판사인 중국문학의 최대주주인 텐센트 홀딩스(700.HK)가 금일 3.7% 급등했다. 이에 따라 항생지수가 1.4% 상승한 28,994p로 마감하며 10년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 중국 주요 금융지표 추이

(단위: p, %)

구 분	11/7 (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상해종합	3,413.58	0.75	0.60	1.93	9.99
심천종합	2,012.72	0.67	0.52	1.22	2.21
차스닥	1,859.07	0.47	-0.57	-0.42	-5.25
홍콩H	11,645.53	1.05	1.20	1.63	23.96
Shibor 7일물 금리(%, %p)	2.79	-0.33	-2.49	-6.04	9.63
Shibor 1개월 금리(%, %p)	4.00	-0.21	-0.78	-1.76	20.92
중국국채 3년물(%, %p)	3.89	0.67	0.30	7.60	28.34
위안/달러 고시환율	6.6216	-0.05	0.03	-0.23	-4.55
역내 위안/달러	6.6335	0.00	0.02	-0.13	4.70
역외 위안/달러	6.6337	-0.13	-0.02	-0.28	5.16

주: 7일 오후 5시 41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되며 하락

- 뉴욕증시가 국제유가 급등에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웰컴과 브로드컴의 인수 합병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행진. 약보합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연기금 매수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단체를 비롯한 기관과 개인 매도세로 이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코스닥도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며 하락을 주도, 사흘 만에 하락 마감. 사상 최고치 경신에 대한 부담감과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FTA 재협상 등에 대한 경계심리가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신세계가 장중 11% 이상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소비심리 개선, 신사업 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이마트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이는 등 유통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임. 여객수요 증가와 공급 증대 등에 힘입어 3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한 제주항공은 13분기 연속 흑자행진에 강세를 보였으며, 콜라겐 및 디알데히드 전분을 포함하는 필러용 고분자 복합체에 대한 특허권 취득 소식에 셀루메드가 상한가를 기록. 또한, 신규 상장 첫날 차익실현 매물로 급락했던 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상한가를 기록. 모회사인 코오롱을 비롯해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글로벌 등 계열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임. 반면, 3분기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신작 게임 출시 연기 소식에 컴투스가 8% 이상 급락했으며, 모회사인 게임빌도 7%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며 게임주 하락을 주도

종목/테마	내 용
신세계(004170) ▶246,500 (+8.35%)	3분기 실적 호조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각각 34.3%, 80.4%, 617.8%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 소식에 신고가 경신 - 이는 지난해 5월 오픈 이후 반년 만에 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면세점 부문이 97억원 흑자전환하며 실적 상승을 주도. 최근 한-중 양국간 관계 개선 기대감이 고조되며 중국인 관광객 소비 회복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셀루메드(049180) ▶9,320 (상한가)	필러용 고분자 복합체 특허권 취득 소식에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라겐과 디알데히드전분을 포함하는 필러용 고분자 복합체 관련 특허 취득 소식에 상한가 - 이는 필러로 개발돼 피부내에 지속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공동 개발한 미국에서는 무릎 연골치료를 위한 3D 프린터용 바이오잉크 소재로 응용개발되고 있어 관련 소재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조선주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3사가 3분기 영업 흑자를 기록하며 실적 개선 기대감이 확산된 가운데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인 중형 유조선의 발주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선업종 일제히 상승 - 한진중공업(097230, +5.48%), 삼성중공업(010140, +5.33%), 대우조선해양(042660, +4.44%), 현대중공업(009540, +4.13%), 현대미포조선(010620, +3.21%)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2주 신고가 및 상한가

종목	내 용
삼양사우(145995) ▶60,000 (+3.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양그룹 자회사인 삼양패키징의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신고가 경신
네이처셀(007390) ▶8,080 (+3.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퇴행성 관절염 자가출혈세포치료제 조인트시스템의 임상3상 돌입 및 국내품목허가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단기 유망종목: 하이비전시스템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하이비전시스템 (126700)	13,800 (+6.6)	12,950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듀얼카메라와 3D카메라 시장의 확대와 고사양화에 따른 검사장비 수요 증가 전망 - 하반기부터 신규 거래처와 장비 매출이 추가되며 삼성과 애플이 전략 스마트폰에 듀얼카메라를 탑재함에 따른 수혜 전망 - 18년 예상 PER 8.4배로 Peer 업종의 평균 PER 16배 대비 저평가
삼성엔지니어링 (028050)	13,350 (+10.3)	12,100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분기까지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가장 많은 수주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어 글로벌 업체 중 Best performer로 자리매김할 전망 -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PTT, 페트로나스, SABIC 등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발주처의 투자 재개 전망 - 급속한 턴어라운드에 따라 2018년 예상 PER은 16.6배까지 낮아질 전망
한솔케미칼 (014680)	71,500 (-0.4)	71,8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용 과산화수소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분기 수준까지 회복될 전망 - 국내 공장이 100%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부터 신규 설비가 가동되며 매출액 증가 전망 - 금년 초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DPT(Double Patterning Tech) 소재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테이팩스의 전자재료 사업도 신제품 공급으로 성장폭이 확대될 전망
포스코강판 (058430)	27,750 (-6.3)	29,600 (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P(World Premium) 제품 확대를 통한 제품믹스 개선 전망 - 3분기 중국 컬러강판 가격이 크게 상승해 하반기 실적 개선 예상 -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에 여전히 높은 배당 성향으로 투자 매력 상존
신성델타테크 (065350)	4,505 (+5.9)	4,255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방업체인 LG전자의 건조기 판매 급증과 더불어 세탁기, 청소기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HA사업부의 성장 모멘텀 지속 전망 -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배터리 부품 및 ESS부품 매출의 구조적 증가 예상 -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종료되며 순이익이 지난해 대비 가파른 개선세를 보일 전망
아이콘트롤스 (039570)	31,000 (+14.8)	27,000 (8/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입주량 증가에 따른 스마트홈 사업부 매출 증가 기대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사업부의 사업성 부각 전망 - 안정적인 캡티브마켓, 계열사 지분가치, 스마트홈 및 지능형 빌딩 산업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 -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엔지니어링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이엘피 발행주식의 자사주매매(신탁포함) 위탁 증권사입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송원산업 외 5개 종목

(단위: 원, %, 십억 원, 배)

종 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7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송원산업 (004430)	22,400 (+12.8)	19,850 (10/18)	739	70	44	1,847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폴리머 수요 증가와 국내 윤활유 첨가제 Capa 증설로 비수기인 4분기 호실적 달성 전망 - 올해 4분기~내년 1분기 사이 신규 크래커 가동에 폴리머 안정제 수요가 증가할 전망 - 수년간 이어질 미국 석유화학 증설 랠리의 초입 단계로 향후 구조적 성장 지속 전망 				
이앤티텍 (091120)	16,150 (+14.5)	14,100 (7/20)	256	21	15	1,060	1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일의 BA(Balanced Amature)스피커 생산 업체로 스피커 활용기술 발전에 따른 수혜 전망 - 지난해 베트남 공장 증설과 자동화 설비 확대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인건비 절감 예상 - 갤럭시노트8과 V30 출시로 하반기 마이크로스피커와 리시버 관련 매출 증가 전망 				
KG ETS (151860)	3,800 (-10.0)	4,220 (7/5)	125	20	15	428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팀 판가와 동 가격이 동반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 국내 주요 FPCB업체들의 증설로 인한 전자소재 사업부의 실적 턴어라운드 전망 -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지정 폐기물 비중 상승으로 환경 사업부의 수혜 전망 				
SK (034730)	288,500 (+3.0)	280,000 (5/29)	92,094	6,175	6,025	39,396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주주환원정책과 재벌기업 지배구조개선 정책에 따른 수혜 전망 -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상향 추세 지속 전망 - 실트론 인수를 통한 자회사 간 시너지와 탈석탄 발전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 				
풍산 (103140)	49,200 (+20.6)	40,800 (5/23)	2,970	279	190	6,766	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로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전망 - 풍산 주가의 저평가 요인인 Roll margin(가공이익)이 과거 3~4%에서 올해 1분기 7%까지 상승하며 주가 할인 요인 제거 - 현재 주가는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6.0배, PBR 0.8배(ROE 14.4%)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오텍 (067170)	10,250 (-9.7)	11,350 (4/6)	828	37	17	1,288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대 최대치인 전국 입주 아파트 가구 수와 미세먼지 우려 등으로 기능성 에어컨 설치 및 교체 수요 증가 전망 - 2018년 페럴림픽 참가 선수를 위한 장애인용 버스 및 택시 부족으로 정부의 관련 투자 확대 가능성 - 작년 4월 인수한 오텍오티스 파킹시스템의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오텍캐리어 통합빌딩관리 서비스(BIS)와 시너지 효과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신세계(004170)

매수(유지)

목표가: 270,000원(유지)

종가(11/6): 227,500원

커지는 면세점 가치

■ What's new : 3Q17 영업이익 743억원(+80.4% YoY)

신세계의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와 우리의 추정치를 상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0.4% 증가한 743억원을 기록했다. 실적 개선은 면세점이 이끌었다. 신세계DF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200억원 손실에서 97억원 이익으로 반전되었다. 명동 면세점의 3분기 총매출은 3,358억원으로 공표기준의 일매출은 약 37억원으로 계산된다. 백화점 영업이익도 전년동기대비 7.8% 증가했다. 기존점 매출이 1.6% 증가한 반면 행사비용 등 판촉비는 감소한 결과다. 동대구점의 영업손실은 전분기 90억원에서 2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 Positives : 백화점에 더해지는 면세점 가치

면세점 일매출 증가에 따라 이익이 급증했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DF 본사비용 등으로 영업손실이 지속되던 지난 분기와는 다른 모습이다. 명동 면세점의 손익이 여타 부문의 비용을 감내하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외형성장에 이익률 상승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명품브랜드 매장이 9월말 개점된 점을 감안하면 4분기 이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며, 2018년과 2019년 예정된 신규 면세점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도 작아질 전망이다. 신세계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백화점 가치도 긍정적이다. 대부분 대형 백화점으로 업계 추이와 달리 traffic 감소 우려가 크지 않고, 실제 매출도 상대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신세계물 성장(3Q 매출 2,460억원 +17.7% YoY)도 지속되고 있으며 영업손실폭도 줄어들고 있다.

■ Negatives : 2018년 일시적 실적 모멘텀 약화

2018년 영업이익은 올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인천점 영업 종료로 가정했고, 인천면세점 초기 영업손실, 동대구점 영업손실 지속 등을 가정한 결과다. 다만 신규점 초기손실보다 협상력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며, 영업종료 또한 이미 주가에 반영된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악재로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270,000원 유지

백화점 실적에 면세점이 이익에 더해지기 시작했다. 이제는 신규 면세점에 대한 우려보다 오히려 협상력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을 기대할 시점이다. 입점 브랜드에 대한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 개점 초기부터 이익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백화점 또한 대형화와 빠른 온라인 전환으로 업계 내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신세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0,000원을 유지한다. 우리의 목표주가는 2018F PER 13.4배에 해당하며 현재주가는 2018F PER 11.2배에 거래되고 있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941	985	4.7	984	12.4	27.7	4,031	3,842
영업이익	54	74	37.6	56	79.9	80.4	340	294
영업이익률(%)	5.7	7.5	1.7	5.7	2.8	2.1	8.4	7.7
세전이익	38	64	68.6	48	(5.9)	274.7	303	277
순이익	35	39	12.5	32	(17.8)	NM	199	18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원익IPS(240810)

매수(유지)

목표가: 44,000원(유지)

종가(11/6): 36,500원

실적부진보다는 수주모멘텀 재개를 보고 사자

■ What's new : 2018년 디램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수주증가 예상

주요 고객사의 2018년 디램 설비투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확대됨에 따라 원익IPS의 수주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2018년 디램장비 매출액은 1,820억원으로 당초 예상대비 109% 상향했다. 디램장비 매출액 증가로 2018년 연간 매출액도 7,775억원으로 당초 예상대비 12% 상향됐다. 반도체장비 매출액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이 있지만 성과급 증가 연구개발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영업이익은 1,626억원으로 당초 예상과 비슷하게 유지했다. 고객사의 설비투자규모 증가로 실적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는 원익IPS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4,000원을 유지한다.

■ Positives : 주요 고객사의 장비발주 모멘텀 곧 재개될 듯

주요 고객사의 장비발주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2018년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장비발주가 12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고객사의 장비발주가 시작되면 올 상반기처럼 2018년 상반기 수주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2018년은 국내 반도체업체들의 설비투자 규모가 총 36조원으로 전년대비 21% 증가해 국내 반도체장비업체들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8년에는 디램업체별로 1x, 1y nm 공정전환이 계획되어 있는데 디램 공정전환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효과가 줄어들고 capacity 감소규모는 더 커지고 있어 디램공급을 위한 설비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지고 있다.

■ Negatives : 3분기 영업이익의 예상을 크게 하회

3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와 우리의 예상에 부합했지만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15%, 우리 예상치는 25% 하회했다. 이익률이 예상보다 나빴던 이유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디스플레이장비의 매출액 비중이 30% 수준까지 높아졌고 성과급을 미리 3분기부터 반영했기 때문이다. 4분기에는 매출액이 915억원으로 줄어들고 성과급이 추가로 반영돼 이익이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 수익성이 당초 예상보다 소폭 부진하기는 하지만 하반기 실적악화는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결론 :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44,000원 유지

주요 고객사의 장비발주 모멘텀 재개로 1Q18부터 실적개선이 예상되는 원익IPS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4,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8년 추정EPS에 목표PER 15배를 적용했다. 4분기까지 실적이 부진하겠지만 수주재개로 주가는 반등할 전망이다. 2018년에도 반도체장비업체들의 주가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7			컨센서스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87.0	198.2	6.0	187.7	(3.4)	107.3	621.1	619.9
영업이익	40.3	30.2	(25.1)	35.7	(35.5)	183.9	134.2	127.1
영업이익률	21.6	15.3	(6.3)	19.0	(7.6)	4.1	21.6	20.5
세전이익	41.5	29.6	(28.6)	34.7	(38.1)	182.5	134.2	128.1
순이익	31.5	21.7	(31.2)	26.4	(41.0)	145.5	102.4	99.6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한국타이어(161390)

매수(유지)

목표가: 90,000원(유지)

종가(11/6): 55,500원

비용은 지나가지만 매출은 남는다

■ What's new: 영업이익 컨센서스 13.7% 하회

3분기 매출은 물량 증가, 판가 상승, 우호적 환율이 맞물리며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했으나 영업이익률이 테네시 공장의 초기 가동비용으로 부진했다. 단 테네시를 제외한 모든 공장의 수익성은 투입원가 하락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매출은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3.9%, 4.3% 상회했다. 추정치 대비 생산량이 2.2% 적었으나 평균가격이 6.2%나 높았다. 영업이익은 2,141억원을 기록해(OPM 11.7%) 추정치와 컨센서스를 각각 8.8%, 13.7% 하회했다. 미국 허리케인 영향으로 합성고무 가격이 상승해 추정치 대비 투입원가가 3.3% 높았으며 테네시 초기 가동비용이 예상보다 컸다. 지역별 매출변동은(YoY) 국내 -12%, 중국 +10%, 북미 +9%, 유럽 +20%, 그리고 기타 +17%였다.

■ Positives: 중국 믹스개선, 유럽 세컨브랜드 안착, 미국 일본계 OE 확대

중국의 믹스개선 속도가 가파르다. 중국 내 고성능타이어(UHPT) 비중은 49.2%로 급등세가 지속됐다(QoQ +1.2%p, YoY +9.2%p). 이는 로컬업체와의 기술격차로 UHPT 대중화 수요가 글로벌업체들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2017/8/25 '다시 중국이다' 참조). 한편 유럽은 동계용 타이어의 계절성 외에 세컨브랜드 라우펜 판매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도요타 캠리와 혼다 어코드에 신차용(OE) 타이어로 채택된 효과가 3분기부터 본격 반영되며 부진한 시장수요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증가했다.

■ Negatives: 국내외 공장 비용 증가, 그러나 지나갈 이슈

해외공장과 국내공장이 차례로 3, 4분기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먼저 미국 테네시 공장은 3분기에 감가상각비 200~250억원에 초기 가동비용이 약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흥국 위주인 과거 신설공장 대비 체반 비용이 높은 미국에 신규설비/신규인력/고급원재료를 사용해 시험가동했기 때문이다. 단 3분기 말부터 매출이 시작돼(3분기 200억원) 4분기에는 비용이 줄어든 전망이다. 여기에 인명사고로 가동을 12일 간 중단했던 국내 금산공장이 일부 라인부터 생산을 재개했다. 재고판매로 매출감소가 최소화되고 공장도 이번 주 내로 전면가동 될 전망이다, 4분기 고정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270억원 추정).

■ 결론: 비용 증가에 가려진 펀더멘탈 개선에 집중하자

최근 연이은 국내외 공장의 비용이슈로 주가가 전고점에서 급격히 조정받았다. 단 매출액 증가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심 투자포인트인 믹스개선과 중국/유럽 시장 개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기에 일본계 OE 확대도 긍정적이며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목표주가 9만원을 유지한다(12MF PER 11x).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1,757	1,824	3.9	1,749	9.5	10.1	6,901	6,832
영업이익	235	214	(8.8)	248	4.6	(29.3)	880	947
영업이익률	13.4	11.7	(1.6)	14.2			12.7	13.9
세전이익	236	227	(3.9)	-	6.6	(16.2)	867	-
순이익	189	185	(2.0)	192	2.8	(10.9)	713	76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CJ헬로비전(037560)

중립(유지)

종가(11/6): 6,810원

홈쇼핑 수수료 인하, 콘텐츠 비용 증가로 수익 구조 악화

■ What's new : 3분기 실적은 예상치 하회

3분기 영업실적은 우리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 매출액은 2,782억원으로 예상치를 0.5% 상회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감소했으나 휴대폰 단말 판매와 렌탈 등 기타 매출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185억원으로 예상치를 6.6% 하회했다. 알뜰폰 단말 약정 가입자가 늘며 관련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순이익도 셋톱박스 관련 일회성 손실 46억원 반영으로 51.5% 밀돌았다. 매출액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감소에도 단말기 및 렌탈 매출 증가로 전분기대비 0.9% 늘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가와 알뜰폰 마케팅비용 증가로 3.1% 감소했다.

■ Positives : 방송 가입자 증가 지속, ARPU 증가세 전환

방송 가입자는 UHD 등 진화된 서비스와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로 16년 3분기부터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날로그 가입자 대비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3.4배 높은 디지털 TV 가입자의 비중이 상승하고 주문형비디오(VOD) 이용이 늘고 있다. 3분기에 방송 ARPU는 증가세로 전환했으며 4분기 이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분기부터 알뜰폰 가입자는 감소했으나 LTE 가입자 비중이 늘어 ARPU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알뜰폰업체의 전파사용료 감면제도를 18년 9월까지 1년 연장하고 알뜰폰의 LTE 수익 배분 비율을 10%p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알뜰폰 손익에 긍정적 요인이다.

■ Negatives : 홈쇼핑 수수료 인하, 콘텐츠 구매가격 인상이 손익에 부담

16년 4분기에 과거 2년간 홈쇼핑 송출 수수료 인하와 콘텐츠 구매 가격 인상분을 일시에 소급 반영했으며 17년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3분기 홈쇼핑 송출 수수료는 2분기대비 6.5% 줄었다. 손익 구조 악화로 영업이익률은 15년 8.9%에서 17년 6.6%로 하락할 것이다(16년 3.9%는 비용 증가분을 소급 반영한 것으로 비교가 어려움).

■ 결론 : 중립의견 유지

CJ헬로비전에 대한 중립의견을 유지한다. 최근 가입자 증가세 전환은 긍정적이거나 홈쇼핑송출 수수료 인하로 매출이 정체되고 콘텐츠 구매 비용 등 구조적 비용 증가로 수익성이 하락하고 있다. 19년부터는 M&A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정부가 CATV 아날로그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19년~20년에 SO 권역 통합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276.7	278.2	0.5	273.6	0.9	(0.7)	1,105.8	1,100.3
영업이익	19.8	18.5	(6.6)	19.4	(3.1)	(22.1)	73.5	74.1
영업이익률	7.2	6.7	(0.5)	7.1	(0.3)	(1.8)	6.6	6.7
세전이익	12.7	5.6	(56.2)	15.3	(52.0)	(74.0)	41.3	49.8
순이익	9.6	4.6	(51.5)	11.7	(21.1)	(72.0)	29.3	37.1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KCC(002380)

매수(유지)

목표가: 510,000원(유지)

종가(11/6): 405,000원

최대 변수인 조선용 도료 개선

■ What's new :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회복

매출은 20% 증가한 1.0조원, 영업이익은 13% 증가한 1,121억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달성함과 동시에 3개 분기만에 다시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회복했다.

■ Positives : 건자재 매출 증가와 도료 수익성 회복

도료 수익성 개선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초부터 도료 단가인상을 추진 중이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료 원재료인 BTX류 가격이 급등했던 2분기가 손익의 저점이었고 이제 BTX가 안정되고 P 인상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7/25字 '도료: 5년만의 ASP 상승' 참조]. KCC의 도료 ASP 1% 인상 시 영업이익은 4.6% 증가한다. 건자재 성장이 극대화됐다. 1) B2B창호는 공급이 딸릴 정도였고 그린리모델링 정책으로 B2C창호(30% 비중)도 호조였다. 2) 7/1부터 석고보드 3호라인이 풀가동됐다. 증설물량은 연 1,400억원 규모로 기존의 40%에 해당되고 절반은 벽산을 통해 OEM으로 판매된다. 증설 매출효과는 350억원, 영업이익은 30억원 내외로 추정한다. 주택시황 우려가 있지만 삼성 GBC 개발과 GTX등 교통망 확충으로 KCC와 같은 기초건자재에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 KCC는 이를 겨냥해 2018년 초 광복유리(초고층 건물용) 공장 증설을 완료한다.

■ Negatives : 조선업, 터널 지나고 있어

작년 4분기부터 한국 조선사의 건조물량이 급감하는 동시에 조선용 도료의 마진 악화로 타격이 컸다. 그러나 현대중공업그룹의 상선 수주가 올 3월부터 크게 늘었고 KCC의 매출 시점과의 레깅도 과거의 1년 이상에서 최근 4~10개월로 짧아지는 추세다[표 2]. 즉 3분기부터 소폭이나마 수주 증가의 효과를 입었을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전방은 2017년을 바닥으로 판단한다. 타사와 달리 KCC의 자동차용 도료의 타격은 크지 않았는데, 현대차 신차 도료를 거의 독점 공급하는 구조라는 점이 차별화 요소로 판단한다.

■ 결론: 조선업 회복과 함께 밸류에이션 장벽이 걷힐 것

KCC는 대체로 양호한 실적을 내 왔지만 늘 주가는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 최대 원인은 건자재가 이익을 견인하고 있음에도 조선업 다운사이클의 우려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 2016년은 20년만의 조선업 최대 불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조선 big3의 수주는 전년 대비 3배 남짓 늘고, 2015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이다. 특히 탱커와 컨테이너선, LNG선 등 도료매출 효과를 키울 수 있는 단납기 상선 물량이 늘고 있다. 더불어 조선용 도료 ASP도 타 도료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라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장벽은 제거되고 있다. Top pick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888	1,025	15.4	920	5.6	19.6	3,912	3,723
영업이익	100	112	12.1	100	21.8	13.3	337	325
영업이익률(%)	11.3	10.9	-0.3	10.9	1.5	-0.6	8.6	8.7
세전이익	90	100	11.3	93	2.9	13.4	288	295
순이익	63	72	13.6	70	2.4	13.4	210	217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텔레콤(017670)

매수(유지)

목표가: 346,000원(유지)

종가(11/6): 260,000원

이동통신 매출 증가, 자회사 실적 호전 지속

■ What's new: 3분기 영업실적은 예상 수준

3분기 영업실적은 대체로 우리의 예상치 및 컨센서스 수준이었다. 매출액(4조 4,427억원)은 사물인터넷과 자회사의 매출 호조로 예상치를 3% 상회했다. 영업이익(3,924억원)은 마케팅비용이 늘어 예상치를 4.2% 하회했으나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손익 호전으로 7.4% 상회했다. 연결 매출액은 자회사 매출 호조로 전년동기대비 4.7% 늘었다. 이동통신 매출액도 가입자 및 데이터 이용량 증가로 1.8% 늘었다. 영업이익은 주파수 상각비 증가(분기별로 320억원)와 마케팅비용 증가(+10.8%, YoY)로 7.5% 줄었다. 하지만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증가와 출자지분 처분이익 반영(560억원)으로 144.8% 늘었다. 이동통신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점은 고무적이었다.

■ Positives: 17년, 18년 순이익은 61.7%, 12.9% 증가 예상

미디어, 사물인터넷의 높은 성장성이 지속될 것이다. 17년, 18년 IPTV 매출액은 가입자와 ARPU 증가로 전년대비 각각 18.6%, 15.6% 늘어날 전망이다. IPTV는 올해 흑자로 전환하고 18년에는 수익이 크게 호전될 것이다. 17년 사물인터넷 이동통신 가입자는 10% 늘어날 것이다. IoT 전용 LoRa망 구축으로 사물인터넷 가입자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7년, 18년 영업이익은 SK브로드밴드 손익 호전과 SK플래닛 적자 축소로 전년대비 3.1%, 8.5% 늘어날 전망이다. SK플래닛은 영업이익 적자폭이 16년 3,652억원에서 17년 2,372억원, 18년 1,045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7년, 18년 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이익 증가로 61.7%, 12.9% 늘어날 것이다. 요금인하 영향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 확대, 대리점 리베이트 축소 등 마케팅비용 절감 노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Negatives: 규제 리스크

정부는 9월에 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으며 18년부터 취약계층에 요금 11,000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보편요금제는 실행여부가 불확실한 변수다. 단말기 완전 자급제와 함께 논의될 중요한 정책 방안이다.

■ 결론: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46,000원 유지

매수의견과 목표주가 346,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과 SK플래닛 이익을 제외한 조정이익 기준 통신부문 적정주가 203,018원(PER 12.2배 적용)과 SK하이닉스 및 SK플래닛 지분가치 127,776원(25% 할인)을 더해 산정했다. 배당수익률이 3.8%(기말 3.5%)에 달한다. SK플래닛의 적자폭 축소 및 전략적 제휴 가능성, SK하이닉스 지분가치 상승 및 지배구조 개편 기대 등이 주가에 반영될 것이다.

(단위: 십억원, %, %p)

	3Q17P				증감률		2017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312.7	4,442.7	3.0	4,348.2	2.2	4.7	17,515.3	17,348.5
영업이익	409.5	392.4	(4.2)	412.6	(7.3)	(7.5)	1,583.2	1,636.4
영업이익률	9.5	8.8	(0.7)	9.5	(0.9)	(1.2)	9.0	9.4
세전이익	922.6	1,004.1	8.8	879.0	34.2	132.9	3,363.2	3,113.2
순이익	741.2	795.8	7.4	652.7	27.4	144.8	2,710.7	2,499.8

*상기 보고서는 2017년 11월 6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수)	11/2(목)	11/3(금)	11/6(월)	11/7(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556.47	2,546.36	2,557.97	2,549.41	2,545.44
	등락폭		33.04	-10.11	11.61	-8.56	-3.97
	등락종목	상승(상한)	449(3)	344(2)	456(1)	341(0)	394(0)
		하락(하한)	355(0)	451(0)	331(0)	457(0)	392(0)
	ADR		117.85	114.48	113.15	105.72	106.91
	이격도	10 일	102.28	101.58	101.76	101.18	100.81
		20 일	103.45	102.68	102.77	102.11	101.72
	투자심리		80	80	80	70	60
	거래량	(백만 주)	362	528	293	221	229
	거래대금	(십억 원)	7,568	6,255	5,515	5,433	5,268
코스닥	코스닥지수		695.77	694.96	701.13	703.79	701.14
	등락폭		1.57	-0.81	6.17	2.66	-2.65
	등락종목	상승(상한)	642(2)	452(1)	585(2)	528(2)	576(2)
		하락(하한)	497(0)	684(0)	515(0)	599(0)	552(0)
	ADR		117.78	111.44	109.66	104.21	107.44
	이격도	10 일	101.68	101.15	101.63	101.61	101.02
		20 일	103.56	103.09	103.59	103.60	102.85
	투자심리		70	70	70	70	60
	거래량	(백만주)	631	609	661	595	642
	거래대금	(십억원)	3,585	4,294	4,389	4,591	5,422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유가증권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매수	2,414.8	1,469.5	1,318.7	290.6	73.5	211.9	189.8	15.6	537.3	74.8
	매도	2,489.0	1,338.6	1,408.1	312.6	119.4	188.8	146.2	23.5	617.5	42.2
	순매수	-74.2	131.0	-89.4	-22.1	-45.9	23.1	43.5	-7.9	-80.2	32.6
	11 월 누계	-137.4	431.0	-494.7	598.9	-175.9	-62.3	32.2	-89.0	-798.6	201.2
	17 년 누계	-5,529.4	8,476.2	-7,154.4	6,660.3	-2,003.5	-3,719.8	-92.8	-829.3	-7,169.4	4,207.7
코스닥	매수	4,806.7	338.6	277.0	144.4	11.8	33.0	28.5	4.1	55.2	24.7
	매도	4,710.2	451.9	240.2	51.3	13.1	49.0	54.3	1.9	70.6	44.7
	순매수	96.5	-113.2	36.8	93.1	-1.3	-16.0	-25.8	2.2	-15.4	-20.0
	11 월 누계	524.0	-335.3	-87.3	111.2	-12.4	-50.4	-54.1	3.9	-85.5	-101.4
	17 년 누계	3,731.6	1,880.2	-4,176.3	-729.1	-404.7	-1,040.4	-675.9	-97.7	-1,228.6	-1,435.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9,472	전기가스	-4,621
전기전자	7,101	보험업	-3,242
유통업	7,037	은행	-3,096
삼성중공업	8,444	KODEX 200	-8,601
KT&G	6,599	현대차	-6,210
엔씨소프트	6,588	한국전력	-5,945
한국타이어	5,144	LG화학	-3,736
삼성전기	4,753	롯데케미칼	-3,659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3,483	전기전자	-14,626
운수장비	22,369	통신업	-7,123
미분류	11,213	화학	-3,381
삼성중공업	13,602	LG화학	-17,570
한국타이어	11,633	SK텔레콤	-9,145
KT&G	11,408	LG전자	-8,631
현대중공업	11,023	삼성전자	-8,297
카카오	9,219	SK하이닉스	-4,464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미분류	64,764	전기전자	-6,932
건설업	522	운수장비	-1,430
철강금속	447	유통업	-99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29,652	KODEX 인버스	-8,867
KODEX 레버리지	25,281	SK하이닉스	-8,265
TRUE 코스피 양매도 ETN	3,199	SK네트웍스	-1,808
TIGER 200 IT	3,057	KODEX 200	-1,253
KODEX 미국달러선물레버리지	2,541	현대모비스	-1,165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8,311	전기전자	-16,689
건설업	3,102	기타금융업	-15,089
		화학	-8,567
KINDEX 200	7,240	KODEX 200	-13,433
KT&G	4,262	삼성전자	-12,844
한국타이어	3,847	하나금융지주	-6,040
포스코대우	3,185	LG화학	-4,614
GS리테일	3,160	KB금융	-3,191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39,342	전기전자	-85,343
건설업	25,746	기타금융업	-32,188
유통업	25,730	화학	-23,540
삼성중공업	34,594	삼성전자	-57,810
삼성엔지니어링	26,791	SK하이닉스	-43,448
한국타이어	24,211	LG화학	-33,259
KT&G	21,256	현대차	-27,673
삼성전기	20,301	하나금융지주	-19,060
현대건설	19,799	KODEX 코스닥150 레버리지	-15,336
현대중공업	17,773	SK텔레콤	-14,525
카카오	13,652	LG전자	-13,991
포스코대우	12,046	NAVER	-13,066
코오롱	10,179	롯데케미칼	-12,792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55,202	의약품	-10,951
유통업	26,453	미분류	-10,727
운수장비	25,094	운수창고	-9,111
LG화학	35,010	대우건설	-34,138
SK하이닉스	18,581	엔씨소프트	-18,752
삼성전자	18,395	삼성바이오로직스	-14,402
POSCO	14,755	한국타이어	-11,784
NAVER	13,255	아모레퍼시픽	-10,872
삼성전기	11,163	KT&G	-10,187
현대건설	11,127	한국전력	-9,574
대림산업	10,204	넷마블게임즈	-8,574
신세계	10,060	대한항공	-5,332
GS건설	9,491	LG생활건강	-5,13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3,487	디지털컨텐츠	-5,907	IT부품	1,651	제약	-9,050
금융	1,369	미분류	-3,991	미분류	891	디지털컨텐츠	-2,694
방송서비스	1,149	제약	-3,769	화학	868	도매	-1,635
CJ E&M	2,518	컴투스	-6,417	에코프로	1,805	셀트리온	-8,282
파라다이스	2,108	티슈진	-3,494	주성엔지니어링	1,483	셀트리온헬스케어	-2,144
제이콘텐트리	1,735	셀트리온헬스케어	-2,269	파라다이스	1,346	컴투스	-2,133
에스엠	1,484	셀트리온	-2,166	티슈진	891	테스나	-1,429
에코프로	1,020	신라젠	-1,792	아모텍	772	포스코컴텍	-730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제약	1,413	IT부품	-309	오락,문화	1,517	제약	-2,381
디지털컨텐츠	358	오락,문화	-114	도매	1,212	반도체	-2,069
방송서비스	258	운송장비,부품	-110	방송서비스	766	IT부품	-956
셀트리온	741	에코프로	-311	펄어비스	1,238	컴투스	-1,358
동국제약	639	파라다이스	-268	셀트리온헬스케어	1,199	코오롱생명과학	-737
SK머티리얼즈	288	주성엔지니어링	-115	파라다이스	934	셀트리온	-633
웹젠	265	에이치엘비	-109	에스엠	886	휴젤	-561
CJ E&M	258	대주전자재료	-89	에스디생명공학	697	원익머티리얼즈	-443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13,948	디지털컨텐츠	-10,569	반도체	8,814	제약	-94,937
방송서비스	9,034	미분류	-9,234	연구,개발	6,165	방송서비스	-8,137
연구,개발	7,195	도매	-5,345	IT부품	5,725	디지털컨텐츠	-8,037
CJ E&M	9,494	셀트리온	-12,785	바이로메드	8,445	셀트리온	-93,228
파라다이스	8,526	컴투스	-11,655	에코프로	5,773	CJ E&M	-8,613
에코프로	5,357	셀트리온헬스케어	-8,347	서울반도체	4,702	메디톡스	-6,756
제이콘텐트리	4,801	티슈진	-7,173	비에이치	2,668	티슈진	-5,707
에스엠	4,311	하나머티리얼즈	-2,653	코오롱생명과학	2,480	더블유게임즈	-4,782
메디톡스	4,162	펄어비스	-2,540	휴젤	2,070	포스코컴텍	-4,718
신라젠	3,928	테스나	-1,988	테스	1,750	엘앤에프	-2,808
주성엔지니어링	2,524	오가닉티코스메틱	-1,910	이녹스첨단소재	1,711	솔브레인	-2,592
서울반도체	1,783	셀트리온제약	-1,763	인바디	1,604	컴투스	-2,349
웹젠	1,630	이녹스첨단소재	-1,669	인터플렉스	1,473	에스엠	-2,328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SBS미디어홀딩스	47 일	LG	24 일
세원정공	25 일	한일시멘트	23 일
KINDEX 골드선물 인버스2X(합성H)	24 일	벽산	22 일
TIGER 원유선물Enhanced(H)	20 일	동양고속	21 일
송원산업	20 일	고려아연	15 일
하이폴드3호	19 일	OCI	15 일
에스엘	17 일	삼영전자	15 일
세종공업	16 일	KCC	14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금강철강	37 일	동원개발	55 일
선광	31 일	네오팜	25 일
손오공	21 일	넥스트바이오홀딩스	14 일
엠젠플러스	20 일	고려반도체	13 일
아이엠텍	18 일	동우팜투테이블	13 일
이베스트투자증권	18 일	우리손에프앤지	13 일
뉴인텍	18 일	리노공업	13 일
이디	17 일	제일제강	1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KODEX 200	162,240	SK하이닉스	190,992
카카오	61,291	LG화학	143,172
삼성중공업	56,337	삼성SDI	101,212
넷마블게임즈	54,137	LG전자	71,432
삼성SDI	53,159	KB금융	55,343
한미약품	45,477	LG	51,830
현대모비스	43,730	롯데케미칼	41,459
엔씨소프트	43,150	SK이노베이션	31,177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CJ E&M	32,618	동진세미켐	17,978
하나머티리얼즈	19,909	서울반도체	14,055
파라다이스	12,709	바이로메드	13,695
나스미디어	12,079	실리콘웍스	10,893
엘앤에프	11,937	테스	7,949
셀트리온	10,439	티씨케이	7,869
에코프로	8,601	웹젠	7,101
휴젤	7,618	KG이니시스	6,303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25,730	26,453	52,183
서비스업	39,342	3,576	42,918
운수장비	17,459	25,094	42,553
삼성중공업	34,594	2,357	36,951
삼성엔지니어링	26,791	6,101	32,892
삼성전기	20,301	11,163	31,464
현대건설	19,799	11,127	30,926
GS건설	6,862	9,491	16,352
카카오	13,652	2,552	16,205
신세계	3,806	10,060	13,866
삼성SDI	7,949	5,356	13,305
SK케미칼	6,242	5,869	12,111
대림산업	965	10,204	11,169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연구,개발	7,195	6,165	13,361
IT부품	5,543	5,725	11,268
반도체	853	8,814	9,668
에코프로	5,357	5,773	11,130
바이로메드	1,349	8,445	9,794
서울반도체	1,783	4,702	6,484
제이콘텐트리	4,801	738	5,539
휴젤	1,579	2,070	3,648
인터플렉스	1,244	1,473	2,716
인바디	908	1,604	2,512
인트론바이오	1,015	1,153	2,168
CMG제약	535	1,173	1,708
리노공업	525	971	1,497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한화투자증권	23 일	진양화학	52 일
SK네트웍스	23 일	동일제강	22 일
TRUE 레버리지 엔선물 ETN	21 일	한일철강	22 일
휴스틸	21 일	삼성카드	19 일
대원전선	18 일	포스코대우	18 일
코리안리	18 일	세방전지	16 일
롯데하이마트	16 일	두울	13 일
스카이라이프	16 일	화승알앤에이	13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모아텍	27 일	레드캡투어	47 일
아이쓰리시스템	24 일	한국가구	34 일
흥국	23 일	대양전기공업	31 일
셀트리온헬스케어	22 일	세진티에스	29 일
테스나	21 일	평화정공	26 일
NHN벅스	17 일	오리콤	22 일
메디아나	16 일	대성미생물	20 일
동양파일	13 일	일지테크	18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140,202	KODEX 200	-173,680
LG화학	-86,256	엔씨소프트	-66,565
SK하이닉스	-83,169	삼성바이오로직스	-59,378
LG전자	-67,948	대우건설	-57,353
롯데케미칼	-53,986	삼성전자	-52,319
KB금융	-53,407	아모레퍼시픽	-50,637
한국전력	-50,559	LG디스플레이	-44,031
LG	-49,052	TIGER 200	-34,831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티슈진	-102,564	셀트리온	-262,620
셀트리온헬스케어	-53,236	티슈진	-93,126
신라젠	-14,660	주성엔지니어링	-11,485
컴투스	-14,197	메디톡스	-10,319
우리산업	-10,443	신라젠	-9,463
이녹스첨단소재	-9,491	에코프로	-7,078
비에이치	-6,854	셀트리온헬스케어	-6,980
SKC코오롱PI	-6,687	지트리비엔티	-5,440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85,343	55,202	-30,142	
미분류	-9,631	-10,727	-20,359	
운수창고	-6,784	-9,111	-15,894	
한국전력	-11,877	-9,574	-21,451	
KODEX 코스닥150	-15,336	-129	-15,465	
레버리지	-5,459	-5,332	-10,791	
대한항공	-5,064	-4,330	-9,394	
한화케미칼	-5,470	-2,482	-7,952	
우리은행	-6,550	-1,248	-7,798	
롯데지주	-5,545	-1,398	-6,942	
한진칼	-3,659	-2,645	-6,304	
SK네트웍스	-5,648	-39	-5,687	
두산중공업	-3,075	-2,069	-5,144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제약	-3,060	-94,937	-97,996	
디지털컨텐츠	-10,569	-8,037	-18,606	
미분류	-9,234	-6,202	-15,435	
셀트리온	-12,785	-93,228	-106,013	
컴투스	-11,655	-2,349	-14,003	
티슈진	-7,173	-5,707	-12,881	
포스코컴텍	-2	-4,718	-4,719	
하나머티리얼즈	-2,653	-473	-3,127	
메디포스트	-1,107	-790	-1,897	
셀트리온제약	-1,763	-110	-1,873	
게임빌	-347	-875	-1,221	
테라세미콘	-557	-428	-986	
원익머티리얼즈	-787	-178	-96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KT&G	90	9,945
LG생활건강	7	9,166
현대모비스	31	8,532
LG화학	20	8,058
삼성전자	3	7,799
LG디스플레이	236	6,970
롯데케미칼	18	6,710
기아차	182	6,35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34	41,096
신라젠	84	6,724
포스코켐텍	117	3,442
코오롱생명과학	23	3,166
휴젤	4	1,998
메디톡스	4	1,885
CMG제약	397	1,882
펄어비스	11	1,615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765	10,612,774
SK하이닉스	38,757	3,236,244
LG디스플레이	50,598	1,492,628
삼성바이오로직스	3,380	1,333,601
NAVER	1,299	1,118,661
LG생활건강	906	1,102,630
카카오	7,140	1,092,454
엔씨소프트	2,367	1,056,68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7,671	4,842,385
신라젠	9,142	736,865
바이로메드	2,387	326,538
로엔	2,933	311,434
파라다이스	14,930	304,562
셀트리온헬스케어	3,133	181,378
코미팜	3,896	154,275
메디톡스	275	123,423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1,731 기계	-5,937	
종이목재	127 운수장비	-5,088	
미분류	68 화학	-4,965	
현대상선	3,306 두산인프라코어	-3,495	
BNK금융지주	1,653 한화생명	-2,799	
대우건설	1,555 아이마켓코리아	-2,241	
GS건설	710 후성	-1,939	
KT&G	633 한진중공업	-1,479	
미래에셋대우	441 두산중공업	-1,357	
한화손해보험	422 흥아해운	-1,170	
SK네트웍스	408 삼성중공업	-1,165	
서울식품	391 크라운해태홀딩스	-1,161	
한화테크윈	346 KR모터스	-92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2,650 IT부품	-2,816	
섬유,의류	1,188 금속	-1,500	
종합건설	1,037 의료,정밀기기	-486	
동원개발	1,433 이화전기	-2,187	
셀트리온	1,333 위지트	-852	
동진세미켐	895 CMG제약	-806	
코웰패션	888 와이지-원	-784	
HB테크놀로지	646 동국S&C	-598	
초록뱀	604 크루셀텍	-472	
씨케이에이치	577 솔고바이오	-466	
파라다이스	513 서한	-443	
기가레인	473 바른손이앤에이	-362	
에스마크	421 신라젠	-339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수)	11/2(목)	11/3(금)	11/6(월)	11/7(화)
외국인	8,476.2	431.0	431.0	303.3	-1.2	-147.6	145.6	131.0
기관계	-7,154.4	-494.7	-494.7	-114.4	-195.2	272.4	-368.1	-89.4
(투신)	-3,719.8	-62.3	-62.3	-39.1	-92.8	66.0	-19.6	23.1
(연기금)	2,869.7	-9.5	-9.5	12.9	-14.0	-20.8	-38.0	50.5
(은행)	-829.3	-89.0	-89.0	-34.1	-30.0	-25.8	8.8	-7.9
(보험)	-2,003.5	-175.9	-175.9	-65.7	-38.5	2.2	-28.0	-45.9
개인	-5,529.4	-137.4	-137.4	-230.5	154.6	-168.3	181.0	-74.2
기타	4,207.7	201.2	201.2	41.6	41.9	43.6	41.5	32.6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5	2016	2017	10/31(화)	11/1(수)	11/2(목)	11/3(금)	11/6(월)
KOSPI	1,961.3	2,026.5	2,546.4	2,523.4	2,556.5	2,546.4	2,558.0	2,549.4
고객예탁금	22,695.6	22,754.4	25,080.2	24,328.7	25,219.0	24,948.0	24,465.3	25,080.2
(증감액)	6,853.1	58.8	2,325.8	-1,600.0	890.3	-271.0	-482.7	614.9
(회전율)	28.8	24.8	40.0	47.2	44.2	42.3	40.5	40.0
실질예탁금증감	7,687.7	-3,211.2	-125.8	-1,649.1	1,082.2	-299.6	-687.5	806.7
신용잔고(KOSPI)	3,035.6	2,929.1	4,462.9	4,313.2	4,359.9	4,419.1	4,450.0	4,462.9
신용잔고(KOSDAQ)	3,491.2	3,848.7	4,577.5	4,468.9	4,497.6	4,518.4	4,545.4	4,577.5
미수금	151.0	125.6	139.4	137.9	160.2	159.2	153.4	139.4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0/30(월)	10/31(화)	11/1(수)	11/2(목)	11/3(금)
전체주식형	72,367	-4,345	-613	159	158	-267	-585	240
(ex.ETF)		-5,288	30	18	34	-38	-16	84
국내주식형	54,124	-4,942	-769	116	108	-309	-655	195
(ex.ETF)		-5,955	-126	-25	-17	-79	-85	39
해외주식형	18,242	597	156	43	50	42	70	45
(ex.ETF)		667	156	43	50	42	70	45
주식혼합형	9,018	984	-71	4	-29	-30	-17	-23
채권혼합형	20,043	-6,316	-94	-22	-9	-61	-14	-18
채권형	101,866	-997	-472	-434	-380	-272	-97	-104
MMF	121,336	13,365	2,751	4,148	-2,632	-696	2,073	1,37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수)	11/2(목)	11/3(금)	11/6(월)	11/7(화)
한국	7,373	388	388	273	-1	-132	131	118
대만	7,557	-185	-185	-53	-38	-12	-100	19
인도	6,271	469	469	162	238	-	-	-
인도네시아	-1,741	-471	-471	-83	-332	-44	-12	-
태국	-98	-158	-158	-32	-48	-70	-8	-
남아공	-4,767	-25	-25	-19	-37	-	-	-
필리핀	1,100	32	32	-	15	12	5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6년말	11/1(수)	11/2(목)	11/3(금)	11/6(월)	11/7(화)
회사채 (AA-)	2.14	2.71	2.69	2.69	2.71	2.70
회사채 (BBB-)	8.27	8.95	8.93	8.94	8.96	8.94
국고채 (3년)	1.64	2.14	2.13	2.13	2.15	2.13
국고채 (5년)	1.80	2.37	2.35	2.37	2.39	2.36
국고채 (10년)	2.08	2.55	2.53	2.53	2.55	2.54
미 국채 (10년)	2.56	2.37	2.35	2.33	2.32	-
일 국채 (10년)	0.06	0.06	0.05	0.06	0.02	-
원/달러	1,210.50	1,114.50	1,114.40	1,113.80	1,115.00	1,111.90
원/100엔	1,030.04	978.58	979.61	975.05	977.21	974.24
엔/달러	117.52	113.89	113.76	114.23	114.10	114.13
달러/유로	1.05	1.16	1.17	1.16	1.16	1.16
DDR3 1Gb (1333MHz)	1.15	1.28	1.28	1.28	1.26	-
DDR3 2Gb (1333MHz)	1.50	1.76	1.76	1.76	1.76	-
NAND Flash 16Gb (MLC)	1.87	2.93	2.93	2.91	2.90	-
CRB 지수	193.97	190.54	190.73	192.01	195.26	-
LME 지수	2,663.2	3,304.7	3,293.7	3,286.5	3,305.5	-
BDI	961	1,496	1,482	1,482	1,473	-
유가 (WTI, 달러/배럴)	53.90	54.30	54.54	55.64	57.35	-
금 (달러/온스)	1,131.35	1,277.05	1,279.20	1,267.20	1,270.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30	31	1	2	3
美> 9월 개인소득 (0.4%, 0.4%, 0.2%) 실적발표> 롯데케미칼, 삼성화재,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美> 10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지대 (125.9, 121.0, 119.8) 中> 10월 제조업 PMI (51.6, 52.2, 52.4) 유럽> 3Q GDP SA YoY (2.5%, 2.4%, 2.3%) 日> 9월 실업률 (2.8%, 2.8%, 2.8%) 9월 유효구인배율 (1.52, 1.53, 1.52) 9월 광공업생산 YoY (-1.1%, -1.6%, 2.0%)	韓> 10월 수출 YoY (7.1%, 17.4%, 35.0%) 10월 CPI YoY (1.8%, 1.9%, 2.1%) 美> FOMC 통화정책회의 (1.25%, 1.25%, 1.25%)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6%, n/a, -4.6%) 10월 ISM 제조업지수 (58.7, 59.1, 60.8) 中>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51.0, 51.0, 51.0)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229, n/a, 233) 유럽> 10월 마켓 유로존 제조업 PMI (58.5, n/a, 58.6) 실적발표> SK이노베이션	美> 10월 비농업고용자수 변동(천명) (n/a, 310, -33) 10월 실업률 (n/a, 4.2%, 4.2%) 9월 무역수지(십억달러) (n/a, -43.5, -42.4) 9월 내구재주문 (n/a, n/a, 2.2%)
6	7	8	9	10
실적발표> SK텔레콤	韓> 한미 정상회담 실적발표> 한국전력, 넷마블게임즈, 삼성중공업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2.6%) 실적발표> 한온시스템, CJ대한통운	韓> 옵션만기일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232, 229) 9월 도매재고 MoM (n/a, 0.3%, 0.3%) 中> 10월 CPI YoY (n/a, n/a, 1.6%) 10월 PPI YoY (n/a, n/a, 6.9%) 실적발표> 삼성생명, 카카오, 엔씨소프트	美> 11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n/a, 100.6, 100.7) 日> 9월 3차 산업지수 MoM (n/a, -43.5, -42.4) 실적발표> 한화생명
13	14	15	16	17
日> 10월 PPI YoY (n/a, n/a, 3.0%)	美> 10월 PPI YoY (n/a, n/a, 2.6%) 유럽> 11월 ZEW 서베이 예상 (n/a, n/a, 0.6%) 3분기 GDP YoY (n/a, n/a, 2.5%)	韓> 10월 실업률 (n/a, n/a, 3.7%)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n/a, n/a, n/a) 10월 CPI YoY (n/a, n/a, 2.2%) 10월 소매판매 추정 MoM (n/a, 0.0%, 1.6%) 日> 3분기 GDP QoQ (n/a, 0.3%, 0.6%) 9월 광공업생산 MoM (n/a, n/a, -1.1%) 실적발표> SK, 오리온, 농심, 금호타이어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천건) (n/a, n/a, n/a)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n/a, n/a, 27.9) 유럽> 10월 CPI YoY (n/a, n/a, 1.5%)	美> 10월 주택착공건수(천건) (n/a, 1165, 1127)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식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